

나주시의회 의장, 5분 발언 제지 논란

이상만 시의원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관련 발언 사전 통보없이 김영덕 의장이 본회의 종료 말뚝

최근 나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놓고 의장과 의원 간 갈등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이상만 나주시의원(경제산업위원장)은 '환경미화원 채용비리'에 관한 5분 발언을 의장으로 부터 요청·승인 받았으나 본회의에서 제지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강력히 항의하며 천막농성에 돌입, 김영덕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은 사전에 합의된 5분 발언을 막은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8일 제2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앞두고 진보당 소속 황광민 시의원과 함께 김 의장으로부터 5분 발언 사전 승인을 받았다.

전 통지 없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본회의를 종료했다. 이 의원은 "김 의장은 지난날 의원의 환경미화원 채용비리에 대한 5분 발언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이전에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며 "5분 발언을 의장이 막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자격 없는 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비리와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나주시 공무원을 포함한 4명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시민소통실과 총무과를 압수수색해 민간인 1명이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원은 해당 내용에 대한 5분 발언을 할 예정이었다. 또한 이 의원은 "강인규 나주시장은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 의혹을 정쟁화한다"며 "시의원을 비난하고 공무원의 시의원 고발을 묵인한 것, 의회를 항의의 방면해 권위를 침해하고 시의원을 고발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킨 점 등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환경미화원 채용비리와 관련, 민간이 참여하는 중립 기구를 통해 나주시의 채용과 인사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감사를 통해 입증하는 나주시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나주=김영수기자



진도군의회, 쌀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진도군의회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 시장격리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진도군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가격 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공급과잉 문제 대책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사진> 진도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벼 작황이 좋아 쌀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31만3천톤 증가한 382만톤으로 전망되지만 내년 쌀 소비량은 354만톤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회는 "수확기 쌀값 하락으

로 농가 경영이 어려워지고 농업인의 시름이 깊어질 우려가 있다"며 "쌀 과잉 공급으로 인한 수확기 쌀값 하락에 대비해 선제적 시장 격리, 범국민적 쌀 소비 진작 정책 추진 등 쌀 가격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춘화 의원은 "쌀 농가는 농업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으로 쌀값 하락에 사전 대응하지 않으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쌀 과잉물량의 신속한 시장격리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도=박필용기자

무안, 폐건전지·종이팩 교환 행사

무안군은 20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폐건전지·폐종이팩 방문교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제성이 높은 폐자원 수거율을 높이고 주민들이 직접 자원 선순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순환도움미와 그린리더가 학교, 공동주택 등을 방문해 폐건전지는 새 건전지로, 폐종이팩은 톨화장지로 바꿔준다.

폐건전지는 크거나 규격에 상관없이 5개를 모아오면 새 건전지 1개를 받을 수 있고 폐종이팩은 우유팩, 두유팩 등 재활용 가능 표시가 있는 종이팩을 몰로 행군 뒤 펼쳐 건조한 후 제출하면 폐종이팩 100g 당 톨화장지 1개로 교환받을 수 있다.

김산 군수는 "11월까지 57곳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소중한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문의 무안군 환경과 061-450-5553) /무안=최옥수기자



"강진 영랑생가 목요일음악회로 오세요" 강진군 강진읍 탐담마을 영랑 김윤식생가(국가 중요민속문화재 252호) 마당에서 진행 중인 영랑생가 목요일음악회 '김영랑 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고 있다. 주민 주도형 인문 프로그램으로 9명의 주민 큐레이터가 진행하는 '9인 9색' 연출을 오는 12월 2일까지 즐길 수 있다. <강진군 제공>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속도

15명 발기인 참여...법인설립 허가 거쳐 내년 1월 출범

내년 1월 출범이 목표인 (재)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이하 수출센터)가 설립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시는 20일 시정 상황실에서 수출센터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 및 창립 이사회를 개최해 설립취지문 채택, 정관안, 임원선임(안) 및 제 규정,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양산단에 조성될 수산식품수출단지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출센터

발기인에는 김종식 목포시장을 비롯해 수산식품산업계, 경영계, 관련 단체 및 협회 등 15명이 참여했다.

김종식 시장은 "수출센터가 수산물 수출 산업 성장의 탄탄한 주춧돌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목포가 대한민국 제1의 수산식품 수출 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기인들은 설립 취지문을 통해 수출

센터가 '수산식품산업의 글로벌 수출경쟁력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전을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 성장을 담보하자는 뜻을 모았다.

시는 출원기관인 수출센터 설립을 위해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전남도가 지정한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인 광주전남연구원으로부터 지난 9월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했다. 이어 재단 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수출센터는 전남도에 재단 설립 허가 신청 후 재단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 직원 채용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수출센터는 행정지원팀·시설안전팀·품질관리인증팀·생산공정관리팀·수출특화지원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며 수산물 고부가가치화·수출산업화 연구·지원 기능 등을 수행한다. 한편, 시는 이달 15일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계획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2022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목포=정해선기자

해남 '황토나라테마촌' 웰니스관광 거점 육성

노후시설 개선 등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박차

해남군 황토나라테마촌이 워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힐링·치유의 웰니스(Wellness) 관광 거점으로 발돋움한다. 해남군은 20일 "땅끝을 찾는 관광객들의 몸과 마음의 치유를 돕고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체류형 관광의 거점으로 황토나라테마촌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토나라테마촌은 지난해 8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돼 '땅끝 해남을 리폼하다'라는 주제로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 노후 관광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숙박동 리모델링과 함께 오토캠핑장에 분산돼 운영 중인 카리반을 황토나라테마촌으로 일원화하고 바다와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숲 속 텐트촌 부지에 프리미엄 카리반 등을 60실로 규모화해 가

족단위 여행에 맞게 차별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희시설인 공방촌과 진미특판장을 리모델링해 관광객이 직접 요리할 수 있는 공유주방으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특산물을 판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조성한다.

인근 오토캠핑장·땅끝전망대 등 주변 관광시설 및 수려한 자연경관을 연계해 해남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꿈자리 어울림 캠핑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운영하고 황토나라테마촌 명칭 공모, 땅끝 브랜드화 사업, 네이밍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방침이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오는 2023년 완료될 예정으로 땅끝관광지 전체의 관광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박필용기자

신안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안군은 20일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돼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산재보험의 50%를 3개월 동안 한시 지원한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0인 미만 업체의 사업주 부담액 국민연금·고용보험료 20%를 최대 3개월 분을 지원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150여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긴급하게 예비비 편성,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안=양홍자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